

나의 경학 연구

최석기*

가정의 성장배경

사실 저는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는데, 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것도 많고 참 기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기구하다는 얘기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7세가 되었는데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는데, 勉庵 崔益鉉 선생하고 같은 경주 최씨 和淑公派 집안입니다. 포천에서 홍천으로 가서 이제 강원도 평창까지 쫓겨 가면서 한미한 가문으로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구한말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 성리학이 몇가지 분파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를테면 華西學派, 전라도 장성에 蘆沙學派 그리고 성주에 거점을 둔 퇴계학파에서 갈라진 寒洲學派, 이 세 학파가 理의 중요성을 주리론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즉리가 아닌 심즉리를 주장하는, 주로 한주 쪽에서 그랬는데, 다른 쪽에서도 ‘心卽理’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그 시대가 아주 급변하는 상황에서, ‘性卽理’ 가지고는 현실대응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심즉리 쪽으로 갔다고 대체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비슷한 사상적 분위기, 이념 속에서 저는 제 아버지하고 윗대가

* 경상대 명예교수

화서학과에 속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아주 극렬한 무장투쟁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태어나니까 현대학문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해서 학교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의 10촌 이내에 대학 나온 사람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보내려고 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진주에 가봐도, 안동에 가봐도, 전라도에 가봐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제 나이 또래에, 그게 유독 화서학과만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7살 때 서당을 보내어 한문을 가르치셨고, 저는 한문이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대학을 들어갔더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얼까?' 군대를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국어·역사·한문 뭐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런 쪽을 택해서 교사가 맞을 거 같아, 다시 공부를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화서학과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노사학과 계열하고 같이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 노사학과 쪽은 빠지면서 自靖으로 돌아섰고, 화서학과 쪽에서는 다 무장투쟁을 하셨고, 나중에 의병 자체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불법처럼 여겨져 북간도로 가셨죠, 북간도까지 가셨다가 내몽고까지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족문화추진회 상임연구원 때 한학자 투어를 삼 년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충청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갔더니 화서학과 계열의 그 柳重敎 선생의 제자 이런 분들이 나와계셨는데, 그분들을 몇 분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때까지도 80년대 초 중반까지도 역시 이분들은 그대로 예전 생활을 답습하고 계셨고, 한 분은 居貞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늦게 해서 크게 성취한 것도 없는데, 이영호 교수께서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공부하며 배우며

대학을 늦게 들어가서 공부할 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연수부 다니면서 서울대 국사학과 정년하실 무렵에 한우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이 어른이 깨끗하고 고운신데, 『대전회통』을 강의하실 적에 한 다리를 꼭 탁자 위에 올려놓으시고, 안경다리를 입에 물으셨어요, 이게 너무 멋있어 가지고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강의해야겠다, 저렇게 되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균관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송재소 선생님이 눈을 찢끔찢끔하면서 강의를 하셨던 것을 그제자 중에 몇몇 따라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닮아갑니다.

한우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황해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서른 살에 대학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늘상 “나는 빨간 날도 놀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빨간 날은 놀지 말아야겠다’, ‘7, 8년 늦게 공부했으니까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에 ‘빨간 날은 없다’고 여쭙습니다. 제 인생에 한 삼 십년 정도 그런 것 같은데, 어느 해에는 365일 달력에 공부 ‘안 한날’하고 ‘한 날’하고 전부 표시를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두서너 시간이라도 공부한 날은 동그라미, 세모, 엑스포를 쳤는데, 저는 쉬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300일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일을 채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루에 세 시간씩 300일을 채우기가. “아! 공부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부’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공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공이 길쌈하듯이 농부가 농사짓듯이’, 그러면서 농부는 빨간 날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허허허허. 그게 이제 ‘바로 학자의 길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나이가 63, 4세 되니까 눈이 우선 안 따라주고 저녁에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호 교수는 10년을 더 달리라고 하셨는데, 말에 기운이 빠져서 10년을 더 달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자칫 이런 자리가 제가 참석해 보니까 개인 PR 내지 무용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벽사 선생이 정년하실 적에 ‘그칠 정(停)자, 정년이 아니고, 정할 정(定)자 정년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념논총에 정할 정(定)자를 처음 쓰셨어요. 그전에 전부 그칠 정(停)자를 썼는데, 그러면서 ‘정년(定年)은 축하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 스승이라는 존재가, 저는 벽사 선생님 앞에 가면, 저는 정말 꼼짝도 못하고 묻는 말에 겨우 땀 흘리면서 대답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허권수 교수, 허경진 교수, 곽진 교수나 김언중 교수나 이런 분들은 농담을 주고받는, 나보다 두 살밖에 더 안 많은데, 서로 막 손잡고 농담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존재가, 경상대 내려가서 얼마 안 되어서 벽사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까마는 이 어른은 글을 아주 짧게 간결하게 쓰시는 특징이 있으시죠. 뭐라고 인사말 간단히 하시고, 용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자네를 본 지 서너 달이 지났는데, 三四日不見이면刮目相對라고 했는데, 자네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다.” 이걸 쓰셨어요. 한문으로. 제 등허리에서 그 순간 진땀이 나 가지고, 마치 뒤통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스승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 자체로서 굉장히 나에게 큰 경책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론 그분이 전화오시면 허리를 굽신굽신대면서 전화를 받죠. 전화기에 대고, 허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학 공부의 여정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가 두서없이 진행되어서 굉장히 두려운데요. 이제 제 공부 쪽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석사 논문은 張維의 文論(『谿谷 張維의 詩論 研究: 天機論을 中心으로』)을 썼다가 박사 때 경학으로 전향을 했는데, 그때 동양철학 하는 분들, 유교 철학하는 분들, 몇 분이 경학을 하고 있었고 거의 경학 연구자가 없었습니다. 星湖를 택하게 된 이유는, 이영호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중간 지점쯤 되는구나’, ‘큰 인물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호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학문적 토대를 많이 닦은 것 같고, 처음에 문학과 가까운 『시경』을 해가지고 성호를 연구한 뒤에 陽村부터 쭉 훑어서 尹鑰까지 온 상태에서 1999년도에 한국한중양연구원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막 중국하고 외교가 터져서 다들 중국에 북경에 가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학문적 토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가서 길물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두려워서 ‘내실 없이 가서 외국학자들을 과연 무엇을 가지고 만날까?’, 또 하나는 ‘중국말만 배워 오는 게 아닐까?’ 이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고, 교환교수로 한국한중양연구원에 가서 『한국경학가사전』을 일 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 때 데이터 베이스가 없어서 마이크로 필름을 뒤져가면서, 도서목록을 통해서 경학자료를 찾아 경학가를 발굴하는 수준이었는데, 낮에는 하루 종일 서울시내 주요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복사를 하고, 저녁에 와서 그걸 정리하기를 그렇게 한 일 년을 보냈습니다.

그 때 제가 정말로 ‘전향’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대학』·『중용』에 관한 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圖說이. 『주역』 관련 도설은 워낙 많지만, 四書 도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서 눈에 띄는 대로 수집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대학도설』과 『중용도설』입니다. 그걸 정리하는 데 한 15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양촌부터 일제강점기 말까지 쪽 훑게 되었고, 그 작업을 하면서 조선시대 경학사에 대한 눈이 조금 트여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 후기 성호나 다산 쪽으로 치중하고 있는 우리 학계의 그 문제점들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퇴계도 그렇고 16세기 학자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조선시대 경학은 『소학』과 『대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자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주자가 가장 일생에 정력을 기울인 것이 『대학』입니다.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편찬하는 데 일생의 정력을 바쳤듯이 나도 『대학』 해석을 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심지어 임종하기 3일 전까지 『대학』 誠意章을 뜯어 고쳤다”고 그래요.

『대학』은 2천 자도 안 되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는 팔조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흔히 知行·追行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리학을 포함하여 경학이 학문의 모든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대부분의 분들이 ‘誠意’를 ‘뜻을 성실하게 한다’고 번역을 하는데, 그건 정말 수박 겉핥기식보다 더 겉핥기식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자의 생각을 조금만 고려해도 그렇게는 번역을 안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뜻 의(意)자가, 뜻 의(意)·옳을 의(義)·뜻 지(志)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의미와 개념이 있는데, 誠意할 때 그 뜻 의(意)자는 마음속에서 막 짚든 생각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意, 思

같은 걸 ‘생각’으로 밖에 번역을 못 해요. 참 안타깝죠. 사유하고 생각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사유하고 생각하고 생각할 사(思), 뜻 의(意)자 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그걸 같은 뜻을 막 얼버무리서 번역을 해놓습니다.

지금도 고전번역원에서 거점연구소의 번역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다가 시피 하는데 할 때마다 거슬리는 게 ‘성의’같은 구절이에요. 전부 그냥 ‘뜻을 성실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밖에 하지 않아요. 제가·치국·평천 하도, ‘집안을 다스린다’,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 ‘나라를 다스린다’, ‘천하를 평치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학』을 제대로 주자학적으로 배우면 그렇게는 번역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서울대 국사학과 쪽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정조의 경학을 제왕학이라고 해서 ‘치국·평천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대학』 팔조목에 대한 해석 중에서 정조는 꼭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선의 경학을 관통하는 요소 중에 16세기에는 성의·정심·수신 같은 실천적 덕목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격물·치지로 굉장히 치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다산 정도면 치국·평천하 쪽에 孝弟慈를 그렇게 풀이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성향이 조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각자도생’하는 식으로 하면은 오류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학 연구의 여정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온 자료를 조금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열댓 분 오실 줄 알고 열 두부 정도만 복사를 해왔는데, 복사를 많이 못해 와서 다시 복사

하는 번거로움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머리말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 공부하면서 은사님한테 영향을 받은 게 많습니 다마는 특히 임형택 교수, 송재소 교수, 이런 분들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임형택 교수께서는 경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닌데 꼭 말씀하시면 ‘특징까지는 잘 간추렸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나?’ 하는 그 의미를 자꾸 캐물으셨어요. 초학자가 의미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문학사적 의의’, ‘경학사적 의의’, ‘사상사적 의의’ 같은 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그 시대나 분위기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관통해야 되고 그 시대 저변·다양성 이런 것들을 보아야 변별성을 통해서 의의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의미를 찾으라는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하셔서 그게 저한테는 선승들의 화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성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글에도 써봤습니다만, ‘조금 의심하면 조금 진전하고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전한다.’는 의심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인용문에 이야기했듯이 복숭아나 살구는 살만 먹고 씨는 먹을 생각을 아무도 안하죠. ‘씨도 먹을 수 있는가?’, ‘씨 속에 무엇이 있을까?’, ‘맛있을까. 없을까?’, ‘씨 속에 맛난 뭐가 있는 건 아닐까?’ 까지 의심을 해보라는 그 얘기가 제게 굉장히 감명깊게 다가왔고요.

그 성호는 사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윤희의 영향 선상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여겨지는데, 그 아마도 백호가 사문난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中原問答』이라는 글을 보니까 성호가 형하고 자형하고 이분들이 지금의 충주 어디서 모여서 토론하는 과정이 있는데, 100% 윤희처럼 ‘주자 주석을 굳이 그렇게 신경써서 볼 것 없어’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전부 주석이라는 것은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 정도이고, 마음

으로 실지로 그곳을 찾아가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인용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 사람은 그냥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가이드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길을 묻고 물어서 간 사람’이 있는데, 운전하면 그냥 따라서 간 사람은 다시 운전해서 가라면 못 갈 수가 있죠. 운전대 잡은 사람은 찾아가는데, 그것처럼 묻고 물어서 직접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쪽 인용문에 있는 유명한 일화가 ‘집안에 모든 것을 長老에게 맡긴다’, 주자를 비유한 것이겠지요. “우리 장로가 우리 부형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에 부딪히면서 감감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득을 통한 실천·실용, 실천을 통한 실용, ‘이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학문적인 토대로 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 1파트 마지막 부분에 써놓은 것 잠깐만 읽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아주 우쭐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박사 사단에 속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다녀보면 부산대와 동아대에 가면은 유명종 사단이 있고, 부산대 가면은 사범대 계셨던 류탁일, 성대같은 경우에는 유승국사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師說을 자신의 논거로 삼는 사람도 있고, 師說를 등에 업고 狐假虎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 학파가 퇴계의 설만을 따르며 새로운 발명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서 학문의 주도권을 기호학파에 내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1600년도 후반기에 葛庵 李玄逸이 영남학과 퇴계학파의 그 우두머린데, 우암계열과 서인계열하고 치열하게 사상적 논쟁을 하는 관계에서 퇴계의 설만을 논거로 삼다 보니까 자기 학술을 만들어 내는데 좀 밀렸던 것 같아요. 저는 1689년, 90년 1700년도 이 시점을 통해서 학문의 주도권이 기호쪽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그걸 느낀

사람이 1700년대 大山 李象靖 같은 사람이 그걸 느껴가지고, ‘通看’이라는 통할 통(通)자, 볼 간(看)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混圖看的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分開看的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숨통을 열어 놓는, 그러니까 대신 이상정 이후에 새로운 경학가들이 영남지방에서 나오는데, 정종로 문하에서도 나오고 柳長源 문하에서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자기 학설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볼 적에 또한 퇴계처럼 살고자 함으로써 안동에 가면 ‘퇴계처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다만 퇴계처럼 살고자 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의 세계를 구축하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새삼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현이 밝혀놓은 의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의리를 발명해야 문명이 후퇴하지 않고 발전한다는 의리주의적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학 연구에 대한 회고

경학의 회고 부분인데, 이 ‘경학’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 이념으로서는 구시대 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조선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학을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성리학과 이학도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쪽입니다. 제가 경학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첫째는 전문연구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뭐 철학·문학·사학·사회학 분야에서 있는데, 사실 제가 ‘일회성 뜨내기 연구자’라고 했는데, 한두 편만 쓰고 마는 그런 연구자가 굉장히 많고요. 지속

적으로 경학을 본업으로 생각하는 연구자가 아직도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 수십 명도 되지 않는다. 씩씩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근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춘추』 연구자도 나오고 『서경』 연구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조선 후기 경학연구에 너무 치중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까 이영호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실학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학이 연구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지적하는 바는 ‘실학적 경학’이게 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신 말씀인데, 제가 가장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경학을 실학 밑에 하위 개념으로 두느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셋째가 정약용, 이익, 윤희 뭐 그렇게 주자학과 다른 쪽 성향을 보인 이쪽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 국학연구가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조선의 얼, 조선의 넋을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이 연암이라든가 다산을 연구하는 것은 정황상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조금 과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국학의 그 조류를 형성해서 쪽 내려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제가 어느 글에 “경학연구자 26명 가운데 17명이 다산을 연구했다”라는 사실이고요.

넷째는 ‘새로운 경학가를 발굴 조명하는 일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인데요, 사실 제가 崔象龍 같은 사람을 발굴했더니 논문이 많이 나와요. 초학자가 발굴하기는 힘들겠지만, 중견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발굴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큰 인물이 발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旅軒 張顯光도 사실은 경학이나 성리학이 많이 발견이 안 됐고요. 성리설이 엄청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한주 이런 분들이나 먼우 등과 같이 엄청난

분들이 있는데 워낙 방대해서 접근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섯째는 십삼경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중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좀 전에 『춘추』의 경우를 말씀드렸습시다만 역학, 역경 쪽은 많은데 『춘추』나 이런 쪽은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문학 연구에 있어서 사론·사평이 모두 春秋大義하고 연관이 있는데, 제가 남명의 엄광론이나 곽재우의 글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저변에 전부 춘추대의 정신이 깔려있어요. 그것을 연관시켜서 史論으로 연구접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특히 한문학 분야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가장 제가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건데, 한 연구자가 너무 많은 경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희 때의 무슨 성호의 四書연구 등으로, 사서에 대한 연구를 싸잡아서 했는데, 제가 30여 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서를 한꺼번에 연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맹자』를 3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어렵듯이 느끼는 것이 『맹자』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선설'이고 하나는 '왕도정치' 사상이다. 특히 앞 부분에는 왕도정치 부분이 많고 뒷부분에는 성선에 관한 '性'담론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성'담론이 많다. 다 자사학과의 『중용』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사실 조금씩 느끼는데, 이런 데 대한 연구를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특히 『대학』·『중용』은 제가 뭐 30년 가까이 해오지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다들 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누구의 '사서 경학사상 연구', '사서연구'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피상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경학 연구의 전망

다음은 3쪽 끝에 나아갈 방향으로, 다산 같은 특정 경학가에 치중되어 있는 데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예 그냥 함자를 들먹이면, 우리 다산연구소의 박석무 선생님 같은, 또 성균관대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은사님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어느 때 보면은 다산을 신격화하고 있어요. ‘다산은 천재다’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으로써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감히 니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조적 이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위대한 다산이나 퇴계 성호라고 해도 이런 분들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 사상적 배경과 풍토 속에서 나온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는 아니다. 그냥 ‘시대가 낳은 산물이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발전을 추적하는 연구가 돼야지 그분의 어떤 특징만을 들먹이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반주자학’·‘탈주자학’·‘탈성리학’이런 건데, 제 나이 또래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제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 반주학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탈주자학이나 탈성리학, 특히 탈주자학이라는 말로 ‘탈(脫)’이 뭐냐.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책에 쓴 논문에 ‘교집합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윤희를 이야기하면서 주자학과의 교집합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교집합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중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탈(脫)’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완전히 이탈한 것인

가. 약간 벗어난 것인가. 그것도 좀 더 따져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4쪽 뒤쪽인데요. 실학자들이 ‘당대 학문의 폐단을 비판한 것이지, 성리학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자를, 30년 조금 안 됐는데, 대학원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팀을 꾸려 가지고 경상대 중심으로 주자 유적지인 복건성과 강서성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자의 아버지가 수령을 하셨던 곳에 갔는데,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때 다녀와서 『주자』라는 책을 동학들하고 같이 연보를 번역했는데, 지방출판사에서 출간해서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니다.

그 책을 펴내면서 주자를 조금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자는 그때 당대 최고로 진보적인 지식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시대에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로 잘 안 분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년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정이천도 그랬고, 주자도 그랬고, 사상탄압을 받아서 거의 문상객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러한 분은 말하자면 조선 시대나 우리시대 논리로 치면, 사문난적이나 빨갱이죠. 제가 경상대 89년에 가서, 자유민주화교수회의에 도장을 찍었더니 빨갱이라고 낙인찍혀가지고 한 5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사를 잘 해 살아남았습니다. 인사까지 안 했으면 진짜 빨갱이가 될 뻔했는데 그때 이런 점을 느끼면서 과연 우리나라 조선시대 학자들이 주자를 반대한 사람이 있을까? 인간 주자나 주자학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어느 글에다가 썼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서경』에 나오는 三事에 ‘正德·利用·厚生’ 중에서 특히 연암학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용후생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뜯어보니까, 연암이나 박제가나 이분들이 이용후생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고, 너무 정덕에 치중해 있으니까 이

용후생의 가치를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지, 정덕을 빼자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물론 선후관계는 있어요. 이용후생을 해야 정덕이 된다. 그런데 당대 성리학자들은 정덕을 하고 나서 이용후생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정덕을 내버리고 이용후생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셋째, 그 분야에 전문연구자가 있어야 각 경전별로 전문연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우리는 특정 경학가에 치중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호나 다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산의 경학을 사서에서 오경까지 다 하려고 하는, 사서도 하기 버거운데, 사서도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중용』만 가지고도 안되는데, 이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가 『시경』을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시경』의 총론에 관한 六義說, 四始說이니 政變說이니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詩序說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지식이 없이 그냥 보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 앞에 총론 부분을 공부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중용』도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걸려야 그 기본적인 그 트렌드 같은 것을 이해하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고문의 특징 같은 걸 잡아서 무엇을 논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래서 전문연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절실히 들고요.

넷째, 그래서 관련하여 누구의 어떠한 경학사상 이런 연구 제목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춘추』 삼전, 『주례』·『의례』·『예기』 이런 三禮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예학은 우리나라의 사대부의 예가 士禮니까, 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례 위주로 조선시대 예학이 발전해 갔는데, 四禮

위주의 家禮 쪽은 있는데, 그 전에 있는 의례에 나오는 學禮부터 연구해 나가는 이런 연구자들이 필요하다.

7쪽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경학연구는 반주자학이나 탈주자학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그것만이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동안 학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정작 조선학계의 주류는 정통 주자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세기 넘어오면 17세기 후반, 이분들의 설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있어요. 특히 南塘 韓元震 제자들 중에 연구할 가치가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뭐 안 하고 있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씩 역사 쪽에 한두 분 나오거나 사상 쪽에서 한두 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에는 현대학문에서 찾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유행했던 것이라고 생각 되고요. 그런데 이에 반대한 것이 과연 그렇게 의미있는 것인가. 문제는 주자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학자들이 주자의 설만을 맹종하며 획일주의로 나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런 교주적인 사유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로 진전한 학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를 두고 “반주자학이나 탈주자학으로 성급히 결론을 내리면서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설부른 것이었다.”라는 반성을 전체적으로 해봅니다.

제가 사담인데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억지로 저한테 떠맡겨서 제자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정전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책은 두 권밖에 안 나왔는데, 선생님들께 다 드렸으면 싶은데, 저자에게 3권밖에 안 줘요. 책을. 하하. 드리지 못해 굉장히 죄송하고요. 책 값도 엄청 비싸요. 삼만 오천 원 그래요. 그 처음에 번역하면서 첫해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우선 어록체가 문제입니다. 왕부지의 『讀四書大全說』을 이영호 교수하고 같이 번역하다가 아주 혼쫓이 난 적이 있는데요. 호남학 쪽의 사투리 놈 자(者)자를 그 기(其)처럼 쓰이는 용례가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뭐 저야 문외한이죠.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어록체에 대한 이해가 모자랐던 건데, 퇴계의 제자들하고 문답 편지에 보면 전부 어록체 관련 내용이 제일 많아요. 사실 어록을 이해하는 게 옛날에도 어려웠던 거죠. 어록체도 문제이고, 구어체가 지금 백화하고 다른 어록체, 그런 것에 대한 문법도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을 여기저기서 수습해서 모아 놓은 글이다 보니까 글이 미완성된 문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가 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 제가 크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번역이 다 되고 나면 발표를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까지 살아있으면 발표를 해야겠지요. 그 중국에서 理學이라고 하지요, 理學, 心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심학을 학자들이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양명학 쪽을 心學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心性談論을 심학이라고 범범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理學이 우리나라에서는 性理學이라고 많이 쓰이면서 性理를 ‘性命理氣’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性情理氣’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설이 조금 다른데,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는데, 『이정전서』를 번역하다가 느낀 것이, 특히 정명도·정이천 이 두 분이 보여주는 사고가 전 시대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는데, 바로 이것이 理學이라는 겁니다. 理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합리적 사유, 합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인의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덕목을 제시하면서

일차적으로 사머니즘이나 토테미즘과 같은 사고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이차적으로, 북송 때의 五子라고 하는 그 주돈이로부터 정자로 내려오는 이분들의 이학은 이런 것입니다. 정명도가 어디 수령으로 갔는데, 사람을 산 제물로 바쳐서 이무기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걸 이치가 아니라고 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올리지 않는 것, 제자 능돈인가 뭔가가 “선생님 저는 공부하다가 갑자기 온 방 안에 밝은 빛이 비추는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자 정이천이 하는 말이 “나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네”라고 했습니다. 선문답이죠. ‘보편적인 이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쪽에 있는 거지, 너처럼 허황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회가 있으면 『이정전서』를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자연보』 번역할 때, 처음에 저는 굉장히 신이 났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랬지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다행히 한 30여 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유를 하다가 보면 95퍼센트 이상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걸 찾아서 풀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찾아지면 머릿속으로 수십 일씩 생각을 하면 어느 때 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理學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특히 정자·주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이유가 조선 초기 사대부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귀족 정치시대에서 士들이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반으로 삼았던 게, 정자와 주자의 정신 같아요. 조금만 황제하고 마음 안 맞으면 바로 사표 던지고 돌아오고, 출처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자기의 철학을 세상에 확립시키려고 하는 사 주도의 정신, 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理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기다가 이제 그 청대 고증학을 덧붙인다면 현대의 과학적 사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경학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고요. 탈주자학이니 반주자학이니 이런 쪽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우리 선배 학자들이 주자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또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는 주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새롭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학문체계에서는 오히려 성리학적 요소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용장구』 제27장에 나오는 ‘尊德性 道問學’이 있는데, 북경사대에 있는 秦永龍 교수는 啓功 선생의 제잔데, 그분에게 받은 ‘尊德性 道問學’ 필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필적이요. 이분은 “뭘 써드릴까요?” 저에게 물으셔서 제가 “존덕성 도문학을 써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도문학 존덕성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도문학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용』에는 존덕성이 먼저 나오는데……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존덕성이 먼저입니다. 조선시대 적어도 제대로 된 학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덕성을 드높이면서 진리탐구를 계속해 나가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할 때에 우리 학문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학문은 존덕성은 아예 없고 도문학도, 대학이 상아탑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 되었죠. 취업학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취업전략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두 가지가 다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신을 우리 시대 다시 한번 되살렸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보았습니다.

한국 경학의 연구방향

한국경학의 연구방향은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자의 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계승 발전시키려고 한 경학관을 가졌던 경학가들의 경학적 특징과 경학적 전통은 여태까지 많이들 해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자의 여러 설을 정리하여 정설을 확정하고 후대의 여러 설 중 주자의 본의와 다른 설을 분별하여 주자설의 정통성을 확립하려 한 경학가, 특히 17세기 이후 서인계, 노론계 쪽에 있는 학자들의 설 여기를 제대로 정리를 한다면, 그 정조가 추구했던 주자학을 집대성하는 주자학이 조선에서 더 심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주자학자들이라고 해서 주자설과 똑같이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구한말 朴文鎬 같은 사람의 설을 보면, 주자가 얘기 안 한 것도 있고요. 주자설과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살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연구를 돌아보며

이렇게 30여 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학회 활동은 10여 년, 한문학과 쪽은 20여 년 동안 했는데, 이 시점에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역시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이 저한테는 다시 어떤 생각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한번 또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더 살지, 얼마나 더 연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주에 가서 31년여 동안 살면서 南冥이라는 분에 대해 강제로 논문을 쓰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61세 때에 거처를 천왕봉 밑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山天齋라는 그 본인이 만년에 기거하시던

곳에 주련으로 걸려있는 「德山卜居」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면 이 분은 천왕봉 때문에 이사를 했구나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구에 ‘只愛天王近帝居’라고 해서 단지 천왕봉이 상제가 사는 곳에 가까이 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고민을 하다가 자장도 그랬고 주자도 그랬는데, ‘태산에 올라가는 것은 과정이지만 태산 정상에 서고 나면 하늘이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하늘과 천인합일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남명이 그런 것을 화두로 계속 두다가, 어느 날 공자께서 다들 잘 아실 텐데, 55세부터 14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셨잖아요? 그리고 68세에 힘든 여행을 하고 돌아오셔서 노나라에서 등용하려고 했는데 마다하시고 물러나서 하신 작업이 육경을 편찬하신 작업입니다.

저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사실을 자각하고 머리끝이 솟아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옛날 분들이 흔히 말하는 ‘掩卷而歎’ 곧 책을 덮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68세면 요즘의 78세인데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꿈을 현실사회에 펼치지 못하니까, 책 속에 담아서 누군가가 먼 후대라도 계속해서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생각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분을 만년에 그렇게 육경을 편찬하도록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까만 『주역』은 복희로 내려온 것부터 그걸 가지고 다시 「十翼」을 만드셨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서경』도 그렇고 『시경』도 3000편을 300편으로 산시했다는 설도 있으니까 그 작업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작업을 만년에 하셨는데, 나중에 남명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남명이 61세 때 그 덕산으로 가면서 당호를 산천재라고 했는데, 『주역』에 ‘山天大畜’이라는 괘가 있는데, 그 괘사에 ‘剛健篤實，輝光，日新其德’라고 해서 “의지를 강건하고 독실하게 하여 빛나게 해서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日新其德’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크게 은거해서 날마다 내 덕을 더 향상시키리라’라는 목표를 가지신 것 같고, 그냥 ‘나도 공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참 막연히 허공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보는 기분이 들 텐데, 산을 바라보면 능선이 있잖아요. 능선이 하늘과 닿은 그 정점이 있는데 그것이 태산인지도 모르지요.

지리산 연구하다가 중국의 태산학원 사람들과 한 10년 동안 교류를 했습니다. 그 때 들은 것인데 공자의 「구름가」라는 시를 본 적이 있나요? 그 야사에 전해 내려오는 「구름가」라는 시가 있는데, 공자가 태산 남쪽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가시덤불을 헤치고 언젠가 저 정상까지 가 보겠다’는 「구름가」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걸 딱 보면서 남명도 저 능선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언젠가는 저 정상에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중용』 제1장의 주자주석을 보면 동중서의 글을 인용한 것이 나오는데, “道之大原, 出於天,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는데, 지리산 大源寺가 거기서 딱 말인 것 같아요.

대원사가 1900년도에 다시 중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누각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주자의 시에 나오는 「觀書有感」에 나오는 ‘天光雲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건물 이름을 천광진, 운영진 이렇게 지어요. 아마도 그 지역 유림들이 돈을 내어서 다시 중건한 것 같아요. 지금은 조계종 비구니들이 살고 있는데,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대원’ 때문에 그 대원사에 ‘조갯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현대 지리산 마니아들이 만든 책에 보면, 조개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1800년도 후반기에 蘆沙 奇正鎭의 제자인 老柏軒 鄭載圭라는 사람의 유람록에 보면, 비로소 조(肇)자, 열 개(開)자 계곡 곡(谷)자, ‘肇開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

니까 어떤 사물의 근원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 유람이 조선시대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자시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원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 근원이 눈에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서 가는 여행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행이겠지요.

그래서 천왕봉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천인합일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남명이 61세 때 그런 지향을 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아직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61세 된 노인이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꼭대기까지 죽을 때까지 걸어서라도 한번 가보자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